

LG화학, 2010년 매출 20조원 육박

영업이익 2조8304억원 달해 ... 석유화학 · 정보전자소재 동반호조 영향

LG화학이 창사 이후 최고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.

LG화학은 2010년 매출액 19조4714억원, 영업이익이 2조830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5.5%와 34.9% 증가했다고 1월28일 발표했다.

순이익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 2조2067억원으로 43.4% 증가했다.

석유화학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조6507억원, 2조2880억원으로 28.0%와 42.3% 증가했다.

정보전자소재 부문의 매출은 4조9085억원,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각각 17.1%, 18.3% 상승했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석유화학 부문은 고부가제품 판매를 늘리고 에너지 절감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였으며 전반적으로 시황이 좋았다”며 “LCD(Liquid Crystal Display)용 편광판이 세계 1위를 굳히고 공급물량이 늘어 사상 최고 영업실적을 기록했다”고 밝혔다.

4/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.5% 증가해 4조9989억원, 영업이익은 5713억원으로 98.9%, 순이익 4442억원으로 99.1% 늘었다.

LG화학은 2011년 매출목표를 2010년 대비 5.8% 많은 20조6100억원으로 책정했다.

시설 투자는 2조3700억원으로 39.3% 확대함으로써 아크릴레이트(Acrylate)를 비롯해 SAP(Super Absorbent Polymer), 대산 NCC(Naphtha Cracking Center) 증설, LCD 유리기관, 3차원용 광학필름, 전기자동차(EV)용 2차전지 증설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1/28>